

01 교회소식

사랑의 선물~

지난 20년간 수많은 성도가 무안단물을 통해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왔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연단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결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과 영광중에 거하게 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03 사랑의 메시지

흠향하실 만한 기도와 찬양

중심을 다한 기도와 가사에 온 마음과 생각, 뜻을 담아 올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신속히 응답을 끌어내린다.

04 간증

“무안단물,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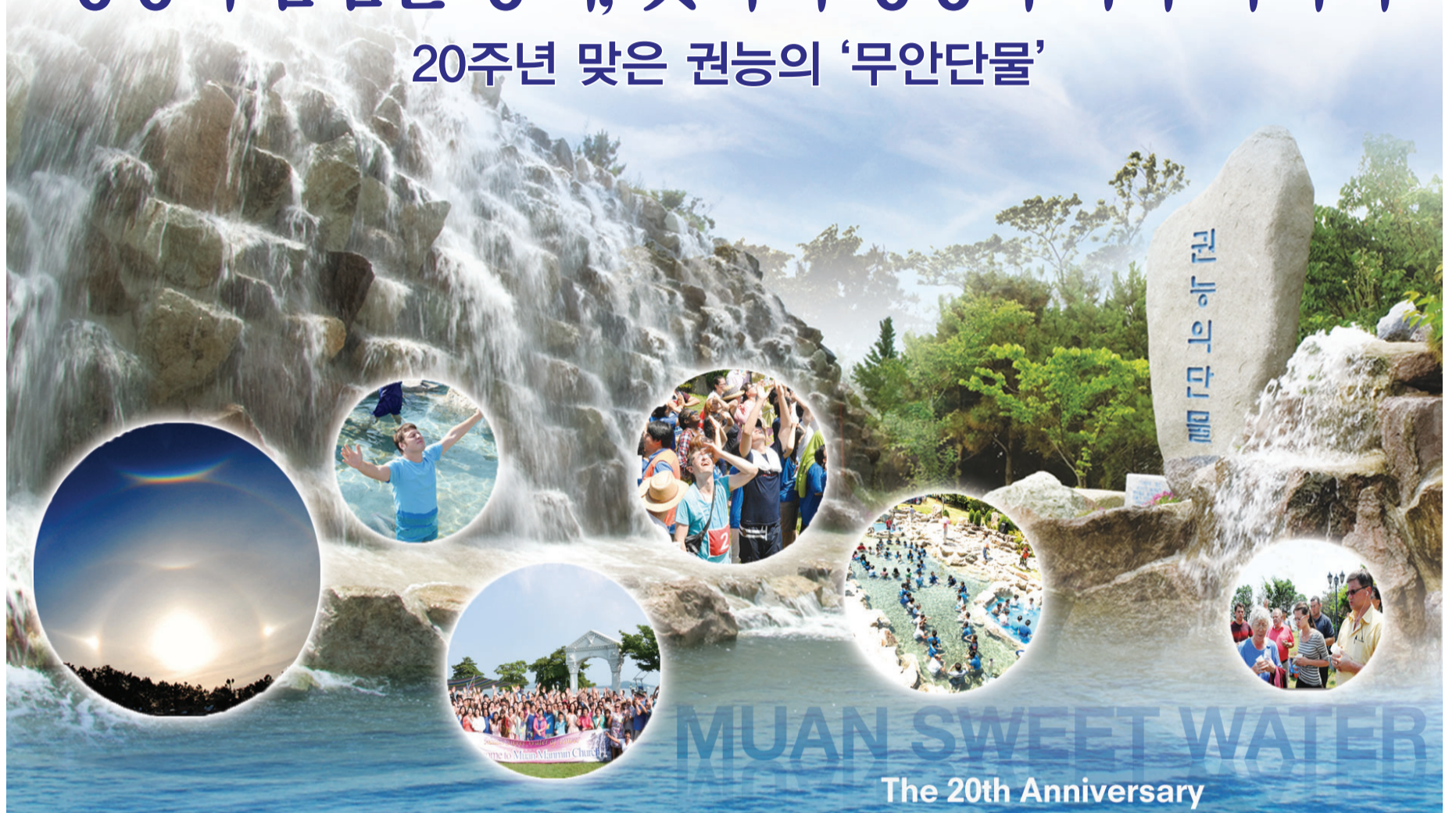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각종 질병이 치료되고 시력이 회복되는 등 무안단물을 통해 기이한 일들을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16호 2020년 3월 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경이 참임을 증거, 갖가지 성령의 역사 나타나

20주년 맞은 권능의 ‘무안단물’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으로 오늘날에도 그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신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2000년 3월 5일에 생활용수 문제로 고통 받던 무안만민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이다.

이는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놀라운

표적일 뿐 아니라, 수많은 성도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수많은 성도가 믿음으로 무안단물을 활용할 때 화상, 피부병, 관절염, 비문증, 하지정맥류, 통풍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았으며, 마음의 소원에 응답 받는 갖가지 희한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왔다. 사람은 물론 죽어가던 동식물이 살아 나거나 실하게 성장하고, 사모함으로 비린 뒤 쌍꺼풀이 생기는 등 신기한 간증들도 이

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4면 참조).

또한 권능의 현자인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무안단물터에서 믿음으로 침수할 때 치유 역사뿐 아니라 청력, 시력이 회복되며 신비한 영의 세계도 체험하고 있다. 이에 무안단물터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성지가 되었다.

무안단물은 2007년과 201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7종의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우수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미

네랄이 풍부하며 칼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샘물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에는 미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

한편, 3월 1일(주일) 오후 3시 저녁예배는 ‘권능의 무안단물 20주년 기념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1부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출 15:22-25)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2부에는 무안단물 홍보 영상과 예능위원회 축하공연이 있다.

“무안단물 침수 후 이명과 부종을 치료받았습니다”

실로미 아브라모브 목사 | 이스라엘 면류관 보석교회



무안단물터에서 침수할 때 귀에서 무언가 쑥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후 이명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저는 오랫동안 양다리 무릎 아래에 물이 차서 항상 부어 있고, 혈액 순환이 안 돼 피부색까지 푸르스름한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침수 후에는 다리의 부종이 가라앉고 물집도 없어졌으며, 발뒤꿈치의 압박감도 사라졌지요. 더욱이 살갓이 계속 벗겨지면서 본래 피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안단물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어요”

미카가와 메구미 성도 | 일본 나고야만민교회



저는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나 눈에 결막 부종이 생겼을 때, 또 피부가 가려울 때 무안단물을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금방 낫고 회복되었지요.

무안단물을 만나기 전 같으면 병원이나 약을 먼저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무안단물이 떠오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세수한 다음에 무안단물을 바르면 피부에도 좋지요. 무안단물은 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3)

당회장 이재록 목사

주 안에서 연단이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과정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결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 있지요. 그래서 연단을 잘 통과하면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축복도 받을 수 있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롬 5:3~4).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부모는 자녀가 공부하느라 밤잠을 줄이며 애쓰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대신해 주거나 그만두게 할 부모는 없지요. 어찌하든 더 격려해 주며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마음이 아파도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고자 합니다(잠 13:24).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져 들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도 순종치 않으면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자녀가 되도록 이끄시지요. 연단을 통해 죄성들을 발견해 빼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은 변질되지 않는 정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후에는 타락과 더불어 온갖 죄악이 들어왔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거룩한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시며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시지만 죄악이 있는 사람들과는 함께하실 수 없는 빛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즉시로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연단의 과정을 통해 불순물

과 같이 섞여 있는 죄와 악의 모양들을 벗어 버림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자녀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

1)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매우 서운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시험 환난을 주어 고통당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마 7:11).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시험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약 1:14~15).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불의, 욕심이 있으니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했을 때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장성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4~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 위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를 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침을 주고자 하시지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시고,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마음에 곤고함을 느끼게도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그만큼 더 무거운 것으로 책망하시고, 갈수록 더 무거운 징계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즉 사생자가 아니기에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징계하시는 것이니 이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 된 우리도 거룩케 하시기 위해 징계를 가하십니다(히 12:9~11).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 먹게 한 뱀은 종신도록 흠을 먹고 살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뱀이란 영적으로 원수 마귀를 말하며, 흠이란 흠으로 지어진 육의 사람을 가리키지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만큼 원수 마귀가 시험과 환난, 질병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시험 환난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가하심으로 진리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연단을 받을지라도 이를 통해 값지게 나올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면 결국에는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판사가 될 수 없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지요. 마찬가지로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거쳐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과연 응답받을 만한 믿음인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응답을 주시기 위해 테스트하신 경우는 시험에 들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오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을 주시고 협력해 선을 이뤄 주시지요.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을 못 받는 것뿐이지 그로 인해 환난이 임해야 할 이 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 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3.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온 요셉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어렸을 때에 장차 자신이 매우 존귀하게 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그 꿈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께서 정녕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었지요.

그런데 17세에 이복형들에 의해 이방인에게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이 됩니다. 요셉의 성실함으로 인해 집주인 보디발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또

다른 연단이 오지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정도를 지켜 나갔지만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고 맙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실히 행함으로 전 옥에게 인정을 받아 다른 죄수들까지 관리하며 제반 사항을 처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육적인 요셉의 환경을 보면 참으로 불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씀하십니다(창 39:2~3).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비하신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모든 연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감옥에 죄수로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요셉의 나이 서른 살에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3년 전에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이 받아 온 연단들은 처음에는 날이 갈수록 더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그

것이 머리가 되고 높아지는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참으로 값진 것이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기회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결케 되기를 원하시므로 마음속의 모든 찌꺼기와 혼잡물까지라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도록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과의 행복의 크기는 전혀 다르지요 연단을 통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연단이 소중한 경험들로 남아서 이후 천국에 갔을 때는 참된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연단이 큰 만큼 따르는 축복도 큼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연단 앞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의 소원, 응답받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흠향하십니다.
우리가 얼마큼 믿음이 담긴 사랑의 간구를 하느냐에 따라
그 기도의 향은 다르지요.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건축과 부흥, 담임 목자, 주의 종과 일꾼 등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에는 자신의 성결을 위해,
그 다음에는 일터, 사업터, 가족 등 간구할 것들을 구하는 것이지요.

또한 마음 중심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중언부언하고 탄 생각하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대부분을 방언으로 하는가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입만 달싹거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곱고 예쁜 목소리로 간청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무엇이나
해 주실 수 있다는 신뢰감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을 해도 그 가사에 마음과 생각, 뜻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를 때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지요.
가사 내용에 맞게 감정을 실을 때에
감동함 속에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에
마음의 소원이 신속하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려고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 8:3~4)

- 이재록 목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서 -
2002. 11. 29. 금요철야예배 마칠 즈음

“아들의 아토피성 피부염이 치료되었습니다”

다니엘 푸엔테스 아코스타 박사 | 멕시코

제 아들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 부위에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WCDN 콘퍼런스 준비차 멕시코에 온 한국 출장팀으로부터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바르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무안단물을 발라 주며 기도했지요. 과연 다니엘은 깨끗이 치료됐습니다.



“눈이 밝아져 안경이 필요 없어요”

오미자 권사 | 중국 1교구

저는 20여 년간 심한 불편증으로 항상 눈이 침침하여 안경을 써야만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능의 무안단물을 매일 눈에 뿌렸더니 눈이 너무 밝아져 안경 없이 책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치아 6개 임플란트 시술 후에도 무안단물을 뿌리니 통증과 염증 없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망치로 맞은 엄지손가락 통증과 피멍이 사라졌습니다”

브라이암 폰뜨레라스 형제 | 콜롬비아만민교회

호두를 깨뜨리기 위해 망치를 사용하다 왼쪽 엄지손가락을 망치로 세게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매우 심했고 피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미술사이기 때문에 일할 때 손을 사용해야 해서 즉시로 엄지손가락에 권능의 무안단물을 뿌렸지요. 그 뒤 통증이 사라지고 피멍도 사라졌습니다.



“쌍꺼풀이 생기고 피부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박미희 집사 | 2대대 13교구

저는 무안단물을 눈에 바르고 쌍꺼풀이 생겨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또한 무안단물을 활용해 왼손의 습진과 몸의 가려움증도 치료받았지요.

아들도 두 살 때 폐렴에 휴역까지 겹쳐 많이 아팠는데, 수련회 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전체기도를 받고 무안단물터에 가서 침수한 뒤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천식을 치료받았어요”

탁삼 | 인도 델리만민교회

저는 오랫동안 천식을 앓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숨 쉬는 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스팀을 쏘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델리만민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무안단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숨 쉬는 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안단물 스프레이를 코에 뿌렸지요. 지금 저는 천식을 치료받아 숨 쉬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손가락에 생긴 사마귀가 사라졌습니다”

정기현 집사 | 광주만민교회

어느 날 오른손 약지에 사마귀가 생기더니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무안단물을 매일 하루 일곱 차례씩 뿌리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서비스(ARS) 환자기도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마귀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더니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The 20th Anniversary

죽어가던 병아리가 살아나는 등 희한한 일을 체험한 성도들

조수희 집사(서울)는 무안단물을 바른 후 왼쪽 귀보다 약 7mm 작았던 오른쪽 귓바귀가 자라났고, 허명욱 장로(경기 이천)는 무안단물을 뿌려 고추가 크게 성장해 많은 양을 수확했다.

조정희 집사(서울)는 2만여 마리의 폐사 직전 병아리들에게 무안단물을 주어 병아리들이 살아났으며, 구성희 권사(부산)는 화단에 있는 백합 줄기에 무안단물을 뿌렸더니 보통 11~12개 맺히는 꽃수가 63개나 맺히는 기이한 일을 체험했다.

- | | | |
|--|---|---|
| <p>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p> <p>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천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사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73-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48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 |
|--|---|---|